CT
234
0986ㅋ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비교

지도교수 이 근 삼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년 1월

高神大學神學大學院

신 학 과

임 정 순

고신대학교

DM00000495

848

임정순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1991 년 월

목 차

Ⅰ. 서 론 …… 1

A. 예정론의 중요성과 연구목적 …… 1

B. 연구 방법과 범위 …… 2

Ⅱ. 칼빈의 구원론 …… 4

A. 칼빈의 생애와 학문적배경 …… 4

B. 칼빈의 구원관 …… 10

1.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 …… 10

2. 복음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 …… 12

C. 칼빈의 예정론 …… 16

1. 예정론의 위치 …… 17

2. 예정론의 이해와 과제 …… 18

3. 이스라엘의 선택 …… 19

4.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 …… 22

1)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예정론 …… 22

2) 예정과 예지 …… 23

5. 이중 예정 …… 23

6.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 29

Ⅲ. 웨슬레의 구원론 …… 33

A. 웨슬레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 33

B. 웨슬레의 구원관 …… 35

1. 타락전 인간이해 ····· 35
2. 타락후 인간과 죄 ····· 36
3. 웨슬레의 죄관과 구원관 ····· 38
C. 선행은총과 복음적 신인협동설 ····· 40
1. 선행 은총 ····· 40
2. 복음적 신인협동설 ····· 41
D. 예지와 예정에 대한 견해 ····· 42
Ⅳ. 칼빈과 웨슬레의 예정교리 비교 ····· 44
Ⅴ. 결 론 ····· 47
◦참고문헌 ····· 49

Ⅰ. 서 론

신학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과 교회에 봉사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신학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하는 원리들을 알게된다. 특히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은 신학의 핵심이며 인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하기에 한국 교회의 두 주류를 이루는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을 다루고자 한다.

칼빈은 그 평생의 좌표를 "주님의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 과거 4세기 동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많은 변호를 받던 칼빈을 평가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2] 그렇지만 칼빈의 구원론을 언급함은 칼빈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웨슬레의 구원론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은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의 신앙을 인도해온 두 신학의 구원론을 비교함으로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

A. 예정론의 중요성과 연구목적

칼빈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상에서 발원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상을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3]

1)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고신대출판부, 1978), p. 75.
2) Ibid., p. 76.
3)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Harold. Knight. tr, 기독교문화협회 역 (기독교문화사, 1987), p. 198.

그의 구원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하여 되어 진다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 칼빈은 종교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격으로 본다. 칼빈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행실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임을 강조한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배제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자녀로써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함으로써(엡 1:4) 그들을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4]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을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5]고 하는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론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예정론을 알아보는 것은 곧 칼빈의 구원론을 아는 것과 같다. 또한 예정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칼빈과 웨슬레의 주요 논쟁점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은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알아봄으로 두 신학자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촛점을 맞추려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고한 정립을 하며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B.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을 비교하되 예정과 예지를

4) Ibid., p. 201.

5)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ondon : James Clarke & Co. 1962) Ⅲ. 21.1.(이후 Inst.로 표기함)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슬레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 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조자료로 삼는다.

예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구원 순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1장에서는 서론과 예정론의 중요성 및 연구 목적을 논하여 방향을 설정하며, 2장에서는 칼빈의 구원론을 3장에서는 웨슬레의 구원론을 다루고 4장에서는 예정과 예지를 중심으로 두 견해를 비교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칼빈의 구원론

A. 칼빈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한 인간의 사상은 그의 생애와 그 시대를 떠나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1] 따라서 칼빈의 구원론에 앞서 칼빈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칼빈의 생애와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고찰해 본다.

요한 칼빈[2]은 1509년 7월 10일에 파리 동북방에 있는 노욘(Noyon)에서 출생하였다. 이때 이미 루터는 4년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다. 칼빈이 여덟살에 달했을 때, 이미 루터는 95개 조문을 출판 하였다. 이 두 사람의 간격을 시간이 갈라놓은 것을 보면 왜 우리는 칼빈에게서 참신한 신학을 찾아볼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3]

칼빈은 아버지 제랄 코반(Gerard Cauvan)에게서 문필력과 예리하고 조직적인 두뇌를 물려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 쟌느 르 프랑(Jeanne Le Franc)에게서는 중세기적인 경건한 신앙심을 배웠다. 칼빈의 가정은 노욘(Noyon)에서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며, 부(富)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칼빈은 이와 같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

1) 주재용, 「칼빈의 생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신대 출판부, 1978), p. 28.

2) 불어로 그의 이름은 쟝코반(Jean Cauvan)이다. 그가 파리에 공부하러 왔을때 자기 이름을 라틴어로 Johnnes Calvinus 라 했고 후에 Calvin으로 부르게 되었다.

3) 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서영일역(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 198.

칼빈의 아버지는 노욘에서 생(生)의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1501년부터 1525년까지 한 교구의 서기와 비서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지방의 상류 계급의 인사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였다고 할 만치 좋은 자리였다. 이 덕분에 칼빈은 상류 계급의 자녀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고, 로마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자랄 수가 있었다. 그는 카페트 대학에서 당시의 귀족 몬몰라 겐리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이와 같은 소년시절의 그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그를 다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칼빈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다. 특히 그는 칼빈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 장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고 신경질적이었으나, 사리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며 이해성이 깊고 지적 역량이 뛰어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이 14세가 되던 해(1523)에 그를 파리로 보냈다. 칼빈은 라 마르슈(La Marche) 대학에 등록을 했는데 그 대학은 당시 인문주의 신 문화의 본산지였다. 여기서 칼빈은 가장 위대한 선생의 한 사람이었던 코르디어(M. Coridier)에게서 라틴어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 후일 칼빈이 자기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코르디어의 덕분이었다.

칼빈은 수 개월 후에 몽타그(Montaigu)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길은 없으나 추측하기는 보다 더 교회적인 분위기가

4) 주재용, op.cit., p. 29.

있는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위의 사람들(아버지 포함)의 요청에 의했던 것 같다.[5] 이 대학은 스콜라 철학의 연구로 유명했고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진영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칼빈은 이곳에서 중세 스콜라 신학중 명목론적 신학(Nominalist Theology)을 배울 수가 있었다. 칼빈이 몽타그 대학에서 교직을 목표로 신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독일에서는 종교 개혁의 선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칼빈이 19세때 몽타그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석사 학위를 획득할 무렵, 그의 아버지 제랄은 노욘에서 성직회와의 불화로 그 직위에서 떠나야 했고, 교회에서 파문선고까지 받게 되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버지 제랄은 아들 칼빈에게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법학공부를 하도록 요구했다. 칼빈은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어서 오를레앙(Orleans) 대학으로 가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이곳은 당대에 가장 명성이 높은 법률가 레트와(Pierre de L'Etoile)가 있었고, 에라스무스, 로이클린등 인문주의자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 칼빈은 이 대학에서 희랍어를 볼마르(M. Wolmar)에게서 배우게 되는데 그는 루터의 개혁정신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 칼빈이 여기서 희랍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파리에서 라틴어를 배운것과 함께 후에 그가 활동하는데 필요했던 두 날개를 얻게 된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희랍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그가 루터의 개혁정신에 영향을 받은 볼마르와 교제 했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를레앙 대

5) Ibid., p. 31.

학에서 법률공부를 끝낸 칼빈은 1529년에 부르쥬(Bourges) 대학으로 가서 로마법의 권위자인 알치아디(A. Alciati) 밑에서 법학을 연구했다.

오를레앙과 부르쥬에서의 칼빈은 법률공부를 하는 것 이상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 두 대학들은 파리대학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는 자유스러운 지적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문예부흥의 정신으로 가득차 있었다. 고전에 대한 연구가 그를 즐겁게 했으며, 새 세계를 호흡하게 했고 옛 세계의 탁한 공기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칼빈으로 하여금 개혁자가 되는데 있어서 의식적 진보가 될 수가 있었다.[6]

1531년 5월에 칼빈의 아버지 제랄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부친의 죽음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생(生)의 전환점이 되었다. 칼빈은 곧 파리로 갔다. 그 곳에서 왕실대학에 가서 다네(Danes)의 희랍어 강의와 바타블(Vatable)의 히브리어 강의를 듣는 한편 세네카(Seneca)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1532년에는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세네카의 '관용론'(De Clementia)의 주석을 출판했다.

여기서 칼빈의 회심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해야겠다. 칼빈의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칼빈 자신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경위를 알 길은 없다. 그러나 그의 시편 주해 서문에서 그는 "돌연한 회심"을 말하고 있고, 파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발적인 회심"[7]을 통하여 굴복시키셨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베자는 1528년부터 1533년에 이르는동안 내적 고투를 통해 점진적으로 된 회심

6) Ibid., p. 33
7) T. H. L. Parker, 칼빈의 모습, 김재준역(대한기독교서회, 1960) p. 12.

이라고 말한다.[8]

그의 회심이 '돌연한' 것이든, '점진적'인 것이든간에 그의 회심에는 결코 한 가지 요인만의 작용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진리 탐구의 열의, 따라서 복음에의 충성, 르네상스에 의한 고전연구, 휴매니즘의 영향, 독일을 비롯한 새 물결에의 부닥침,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심에 의한 것이었다.[9] 그는 회심함으로 인간적인 약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열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칼빈의 종교 개혁을 가능케한 원동력이 되었다.[10]

1533년 11월에 칼빈은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Nicholae Cop)이 파리 대학장 취임식 연설에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말을 인용하여 개혁을 강조한 연설문이 그의 충고로 기록되었다는 소문으로 도망하게 되어[11]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추적당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비밀장소에서 소 모임을 가져 가르쳤다. 1535년에 스위스 바젤로 가서 '기독교강요'의 탈고를 서둘러서 마침내 1536년 그의 나이 27세때에 그것을 출판했다. '기독교 강요'의 집필 동기는 프랑스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하고 박해가 계속될때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 박해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요약하려 했으며,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이들

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신교출판사, 1959) p. 25.
9) 주재용, op. cit., p. 35.
10) Ibid., p. 35.
11) B. K. Kuiper, The Church in History, 김해연역(성광문화사, 1983), p. 230.

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리려는 것이었다.[12]

이후 칼빈은 복음주의 운동의 확장을 위해 이태리의 페라라를 방문하고, 바젤이나, 스트라스버그에 가려 하였으나 전쟁으로 스위스를 경유하게 되어 1536년 7월에 제네바에 들리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스위스 개혁의 선구자 파렐(Willian Farel)을 만나 개혁운동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곧 일어난 반동의 위협으로 1538년 4월에 제네바를 떠나 스트라스버그의 프랑스 피난민 교회 목사겸 신학강사로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기독교 강요의 제 2판을 출판했다. 그 동안 제네바는 정치적 변동으로 칼빈을 추방한 반대파가 실권하고 친 칼빈파가 득세하여 그의 귀환을 요청하자 제네바로 가서 체류하게 된다.[13] 칼빈은 제네바에서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해 제네바를 하나의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범적 도시로 만들려고 하여 교회의 정치 체제, 기강을 확립하는 등 명실공히 개혁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14]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지상의 신정 정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칼빈은 회심사건을 통해서 완고한 자신을 무력하게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인간은 전혀 무가치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만 있음을 알았다. 이런 사상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조직적으로 체계화했다.

교리 사학자 니브(J.L.Neve)는 칼빈을 개혁파 교회 신학자들 중에서

12) 전경연, op.cit., p. 33.

13) 칼빈은 거기서 1541년 9월부터 1564년 5월 임종시까지 체류했다.

14) W.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인공역(대한기독교서회, 1982) pp. 300 ~ 303.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며, 루터가 그의 사상을 체계화하지 않은데 비해 칼빈은 그의 신학사상을 체계화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15]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개혁의 모든 종교적 실천 원리를 독자적인 신학체계의 형식으로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16]

B. 칼빈의 구원관

1.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

인간은 율법아래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항상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방정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 생리적인 교만[17]에서 벗어나 불의하고, 사악하고, 불결하고,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만한 의를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불의를 알리고, 경고하고, 고발하며 정죄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사랑에 눈 멀고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결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을 강요 당해야 한다.[18]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 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명상하고 이러는 동안에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고 급기야 저주를

15)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 1.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420.
16) Ibid., p. 440.
17) Inst., I. 1. 2
18) Inst., II. 7. 6.

느낀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사로 잡힌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범죄가 크게 드러나면 날수록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막중해진다.[19]

칼빈은 원죄를 율법 말씀에 조명하여 정의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실제 죄악들(actual sins)의 근원이라고 본다. 원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이게 하며, 다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육신의 일"(갈 5:19)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한다.[20] 칼빈은 인간 본성이 악하여 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나 감정적 충동(sensuales)이나 육욕(sensualitas) 혹은 영혼의 저열한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부패를 말한다.[21] 칼빈은 인간 전체를 육(肉)으로 본다. 인간 성품은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신과 의지는 완전히 새로와져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요 3:3) 거듭나야한다(요 3:3). 그는 여기서 육체에 관한 중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혼의 일부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영혼 전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며, 그 영혼이 새롭게 될 때에만 거듭나는 것이다. 두 구절[22]을 대조시켜보면

19) Inst., Ⅱ. 7. 7.
20) Inst., Ⅱ. 1. 8.
21) 이형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비추어본 칼빈에 있어서의 인간과 구원, 이종성 회갑기념논문(장신대출판부, 1982)
22) 롬 8:6-7과 요 3:3

이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영과 육은 너무 대조적이어서 그 중간에 어떤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이 아닌것은 무엇이든 이런 이유에서 "육적"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중생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육인 것이다.[23]

이렇게 율법에 비추어 인간을 보게될 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거울로 삼아 우리의 죄악성을 드러내주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해준다."[24] 이렇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는 것이다.

2. 복음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신비가 분명히 계시된 것"[25]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안에 계시된 은혜의 선포"[26]이다. 인간은 인간의 불의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3) Inst., Ⅱ. 3. 1
24) Inst., Ⅱ. 7. 6
25) Inst., Ⅱ. 9. 2
26) Inst., Ⅱ. 9. 2

바울은 중보자에 관하여 말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딤전 2:5)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을 생략한 것처럼 "사람"이란 말을 생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알맞는 순간에 그것에 대응해 줄 가장 적당한 구제책을 사용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자신들 중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이에 친밀하게 세워주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접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27]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것이었다[28]고 칼빈은 주장한다.

물론 나는 창조의 원래적인 질서에서, 그리고 자연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인간들위에 그들의 머리로서 계셨던 것을 시인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그를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자"(골 1:15)라고 불렀다. 그러나 모든 성령은 그가 우리의 속죄주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이유나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이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약속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29]

---

27) Inst., Ⅱ. 12.1
28) Inst., Ⅱ. 12.4
29) Inst., Ⅱ. 12.4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다.[30]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직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또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요 5: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 18:11),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느니라" (마 9:12) 등등, 이에 관한 구절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칼빈의 주장은 지극히 성경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의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다.[3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앞에 죄인된 인간들의 운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롬 5: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칼빈은 십자가 사건외에 부활을 말하고 있다.

---

30) Inst., Ⅱ. 12. 4
31) Inst., Ⅱ. 16. 4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룩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벧전 1:3)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서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등장한 것 처럼 우리 신앙의 승리 역시 그의 부활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다음 말이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준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롬 4:25) 이 말은 마치 그가 "죽으심으로 죄는 제거됐고, 그의 부활로서 의는 다시 살아나 회복되었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32]

이렇게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행위의 의로움을 배척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불잡고 하나님앞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된 인간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따라 말하고 있다.

---

32) Inst., Ⅱ. 16. 13
33) Inst., Ⅲ. 11. 2

칼빈의 구원관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34] 구원의 전 과정이 모두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35]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잘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성화된 생활로 이끄셔서[36]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문제의 전제가 되는 아담의 타락을 두고 아담 타락을 방지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칼빈은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예정(Predestination of God)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한다.[37] 따라서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예정교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C.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신학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칼빈의 은총의 표현은 그의 예정론이라 하겠다.[38] 이 예정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된 일이 없다. 이 교리의 가장 충실한 신봉자들까지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조안에 들어있고, 또 교회 국가에 큰 영향을 주어 온 터였다.[39]

---

34) Inst., Ⅱ. 3. 13
35) Inst., Ⅱ. 3. 6
36) Inst., Ⅱ. 3. 8
37) Inst., Ⅱ. 1. 10
38) 박봉랑, 「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한신대출판부, 1978), p. 133
39)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정덕역, (세종문화사, 1974), 서문에서.

1. 예정론의 위치

칼빈이 예정론을 취급한 그 형식과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서 본다면 예정론은 칼빈 신학의 중심적 가르침이라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기독교 강요 제 1 판은 예정론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선택된 자의 수'로서 교회론 안에서 취급한다.[40] 이 가르침은 1537 년의 '신앙의 훈련'(Instruction in Faith)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취급을 받고 기독교 강요의 후판에 와서 예정론은 개별적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예정론은 제 3 권 성령론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종말론과 소명론 사이에서 취급이 된다.[41] 구조와 형식으로 보면 예정론은 칼빈의 신학에서는(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있고, 전체를 결정하는 예정론 신학으로 취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정론이 말하려고 한 그 정신,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된 그 주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의 자유를 그의 모든 신학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칼빈의 신학은 예정론의 신학이라 할 수 있고 '절대 은총'(Sola gratia)의 종합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42]

칼빈의 직계 제자였던 베자(Beza), "돌트(Dort)회의 신앙 5 개조",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예정론을 기독교 신앙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 신학체계의 대 전제로 삼았다는 사실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예정교리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이다.

---

40) W. Niesel .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65.
41) Inst ., Ⅲ. 21. 24
42) 박봉랑, op. cit ., p. 133

2. 예정론의 이해와 과제

칼빈은 예정론을 논하기 전에 예정론에 대한 사변적 접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43] 예정론이 사변의 유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예정론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연하고 자신 만만하게 이 곳을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미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원 자체로부터 알아내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4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 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45]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예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익하고 위험한 것으로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문제시 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다"[46]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이 어려운 가르침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을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47] 예정론은 칼빈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48]

---

43) Inst., Ⅲ. 21.1
44) Inst., Ⅲ. 21.1
45) Inst., Ⅲ. 21.1
46) Inst., Ⅲ. 21.2
47) Inst., Ⅲ. 21.3
48) Inst., Ⅲ. 21.2

칼빈은 사벼의 신학을 버리고 계시의 신학, 은총의 신학, 성경의 신학, 니젤(W. Niesel)이 이해한 것과 같이 말씀의 신학이 되려 했다.[49]

칼빈의 예정론은 그의 이 신학적 전제와 그의 신학적 해명의 전체의 관련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이스라엘의 선택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자신과 계약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50]라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인에게서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리셨다고 밝히셨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8-9) 그 선별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밝힐 수 있다.

다른 백성들이 제외되고 마른 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이나 개인에게 한

49) 박봉랑, op. cit., p. 135
50) Inst., Ⅲ. 21. 5

민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51]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모세는 후세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나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원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신 4:37)[52]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신 23:5)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믿는다.[53]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저 거룩한 조상조차도 자기와 자손을 위해서 그런 큰 영예를 얻을 만한 높은 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54]

이제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 대한 택하심과 저버림에 관하여 말한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안에 두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음을 말한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제외되고, 에서와 야곱사이에서 에서가 제외되었고, 그 후에 무수한 사람들, 거의 온 이스라엘이 제외되었다.

---

51) Inst., Ⅲ. 21. 5
52) Inst., Ⅲ. 21. 5
53) Inst., Ⅲ. 21. 5
54) Inst., Ⅲ. 21. 5

이삭안에서 그의 후손이 부르심을 받았다. 같은 부르심이 야곱에게 계속 되었다.[55]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계획에 의하여 원하시는 사람을 거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신다고[56] 칼빈은 말한다. 한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선택이 때로는 유효하지 못한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생의 영을 즉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내면적인 은혜만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외면적인 변화는 인류가 버림을 당하는 것과 극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선택되는 것 사이의 중간 상태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기업" 이라고 했지만(신 32:9, 왕상 8:51, 시 28:9) 그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많았다.[57]

칼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전체적으로 택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본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변화할 수 없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 영적 후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효과가 있게[58] 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예정론은 이스라엘의 선택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옮겨진다. 칼빈의

---

55) Inst., Ⅲ. 21. 6
56) Inst., Ⅲ. 21. 6
57) Inst., Ⅲ. 21. 7
58) Inst., Ⅲ. 21. 7

주요 관심사도 개인의 선택에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다루게 되는 내용은 주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4.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

1)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예정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에서 온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59]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취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기쁨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보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 백성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돌릴 때에만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시는대로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실 수 없으므로 보상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60]

또한 이 교리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61]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버림받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음을 인정하면서, 또 그러한 버

59) Inst., Ⅲ. 21. 1
60) Inst., Ⅲ. 21. 1
61) Inst., Ⅲ. 21. 1

림이 죄인인 모든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값 없이 구원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강조한다.

> 일찌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일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 주실 사람들을 오래 전에 정하셨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 무오 하면서도 불가해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 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62]

칼빈의 예정교리는 선택된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택론"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칼빈은 예정론을 은총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칼빈은 예정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인간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전제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예정(Predestination)과 예지(Fore knowledge)를 구분한다.

2) 예정과 예지

칼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정과 예지를 혼돈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두 교리 모두 하나님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다.[63] 즉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 무엇을 미리 아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정에 대해 칼빈은 정의 하기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할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62) Inst., Ⅲ. 21. 7
63) Inst., Ⅲ. 21. 5

라고 부른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자신과 계약하셨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 쪽의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생명, 아니면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본다" [64]고 한다.

예지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며 식별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65]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예지와 상관없이 창세전의 선택[66]이다. 바울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엡 1:4) 말함으로써 공로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더우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하반절)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선택의 원인을 예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반박한다.[67]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64) Inst., Ⅲ. 21.5
65) Inst., Ⅲ. 21.5
66) Inst., Ⅲ. 22.2
67) Inst., Ⅲ. 22.2

덕이 선택의 결과라고 바울은 언급했기 때문이다. 더 고차원적인 원인을 묻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이며, 그 일은 "더 기쁘신 뜻대로"(엡 1:5)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말을 함으로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속에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일체 배제한다.[68]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행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그리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에 의해서 모든 의혹이 풀렸음을 이미 밝혔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한 주장을 뒤집게 되는 것이다.[69]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 의한 것이다. 그에 대한 예를 에서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부모의 자식으로서 아직 같은 태중에 있으며 세상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든 점에서 서로 꼭 같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한 쪽은 받으시고, 다른 쪽은 버리신다. 상속권도 장자의 것을 빼앗아 아우에게 주셨다. 이러한 경우는 이스마엘과 이삭(창 21:12),

68) Inst., Ⅲ. 22. 2
69) Inst., Ⅲ. 22. 3

므낫세와 에브라임 (창 48:20) 에게서도 나타났다[70] 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상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의 판단하에서 원하시는대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중 예정

칼빈의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를 포함한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칼빈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한 것이 공적과 무관하듯이 에서가 용납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기의 근거로서 칼빈은 바울의 글, 롬 9:18 절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 이외에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제외 시키는데 대해서도 그의 뜻 이외에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할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어떤 다른 원인도 찾지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71] 라고 칼빈은 말한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에 대해 어떤 자들은 이렇게 논박한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아직 아무 죄도 짓지않고 그를 노엽게 한 일도 없는데, 무

70) Inst., Ⅲ. 22. 5
71) Inst., Ⅲ. 22. 11

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가? 원하시는대로 사람을 멸망에 내어 놓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 폭군의 변덕과도 같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라도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72]고 주장한다. 이것은 폭군의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73]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또 "하나님의 결정은 그의 공의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표준으로 측량하거나 사람의 약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74]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숨은 결정을 찾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마음으로 경탄해야 한다[75]고 말한다.

칼빈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다.[76] 이는 아담이 죄에 빠지는 것도 예정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결단은 무섭다고 칼빈은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첫 사람의 타락을 예지했고, 아담 안에서 그의 자손들의 파멸을 예지했는데, 그것은 그의 영원한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과 버림받은 자들의 거절을 허락하셨을 뿐아니라 결정하셨으나 공정하게 하셨다.[77]

---

72) Inst., Ⅲ. 23. 2
73) Inst., Ⅲ. 23. 3
74) Inst., Ⅲ. 23. 4
75) Inst., Ⅲ. 23. 5
76) Inst., Ⅲ. 23. 7
77) Inst., Ⅲ. 23. 8

첫 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리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78]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대로 이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에게 더 가까운 인류의 부패성 때문에(부패한 본성 때문에), 즉 그 본성에서 정죄에 대한 명백한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하며 감추어져 전연 알 수 없는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79] 한다. 이것은 인간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자들의 반론을 반박하는 것이다. 칼빈은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정죄받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추어진 영역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돌리고, 정죄의 진정한 원천인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은 못본체하는 것은 패악한 행동이다"[80]라고 한다.

칼빈이 아담의 타락을 예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볼때 칼빈은 분명히 "전택설자(Supralapsarian), 또는 타락전 예정론자"[81]였다. 칼빈이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서 인간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이냐, '인간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냐의 문제를 위에서 다루었는데, 결론적

78) Inst., Ⅲ. 23. 8
79) Inst., Ⅲ. 23. 8
80) Inst., Ⅲ. 23. 9
81)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publishing Co. Michigan, 1979, p. 119.

으로 강하게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 복종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며, 그 지혜의 수 많은 비밀앞에 굴복해야 한다. 아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이 유식한 것이며, 변태적인 지식욕은 일종의 정신이상이다." [82]

칼빈의 주장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은 공정한 것이며, 이 부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재난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83]

사실 칼빈은 유기당한 자들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된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성경이 유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단순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4]

6.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선택은 칼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85] 칼빈은 "영원한 하나님의 결단"에 따르는 "이중예정"의 교리에 비해서

---

82) Inst., Ⅲ. 23. 8
83) Inst., Ⅲ. 23. 9
84) W. Niesel. op. cit., p. 168
85) Inst., Ⅲ. 24. 5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취급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 24 장 5 절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 비록 이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택은 칼빈의 신학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이 없다. 그만이 생명의 샘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다.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의 목적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다." [86]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을 미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예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보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87]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계 21:27

86) Inst., Ⅲ. 24. 5
87) Inst., Ⅲ. 24. 5

참조)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88]고 칼빈은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게 되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증거[89]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옷입고(롬 13:14), 그에게까지 자라서(엡 4:15), 그가 살아 계시므로 우리도 살게 되도록 하신다[90]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롬 8:32, 요 3:16),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91]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시며(요 6:35),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의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92] 그리스도는 우리 선택의 장본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 불변하는 진리,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서 탈선 되지나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는 태

88) Inst., Ⅲ. 24. 5
89) Ibid.
90) Ibid.
91) Ibid.
92) Ibid.

초에 있었고, 영원히 계신 실재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낸다.[93]

이상에서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있다.[94] 그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결코 "아버지"와 "아들"을 선택론에 있어서 분리시키지 않으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일치하는[95] 것으로 말한다.

93) Ibid.

94) John. Murrey,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역 (예수교문서선교회 1976), p. 88

95) H.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aclelphia. 1958, p. 101

Ⅲ. 웨슬레의 구원론

A. 웨슬레의 생애와 학문적배경

요한 웨슬레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엡웨드(Epworth)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웨슬레는 경건한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11세가 되던 1714년 1월 28일에 웨슬레는 런던 차터하우스 학교(Charterhouse School)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720년 6월 24일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 재학시에 학교로부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1726년에는 옥스포드대학교에 있는 링컨대학(Lincoln College)의 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725년에는 부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영국 감독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729년에 그는 그의 동생 찰스와 또 다른 몇 사람이 함께 조직한 신앙단체인 '신성클럽'(Holy Club)의 지도자가 되었다. 당시에 이런 모임의 활동은 국교회 내에서 권장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은 '메도디스트'(Methodists)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규칙을 준수하며 또 서로간에 감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1735년 웨슬레의 형제는 다른 두 명의 옥스포드 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죠지아를 향해 선교를 떠난다. 죠지아 선교활동에 있어서 웨슬레는 국교회의 전통적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개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에 활용하는 일이나 공중예배때 찬송을 부르고, 또 회중이 서로간에 죄를 고백하고 권면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 일로 웨슬레가 국교회에서 분리되어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었다는 힐책을 받게 된다. 어쨌든 웨슬레의 죠지아 선교는 다툼과 불명예스러운 사건들만 겪은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737년 12월에 그는 선교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귀국길에 올라 1738년 2월에 고국에 도착했다.

귀국 후 웨슬레는 피터 뵐러(Peter Bohler)와 같은 모라비안 지도자들과 교제를 가졌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에 '올더스 게잇 체험'을 하였다. 웨슬레는 이 체험 후에 독일에 잠시 다녀온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웨슬레는 그가 이끈 부흥운동 기간 국교회의 성직자들로부터 줄곧 비난과 핍박을 받아왔다.

웨슬레는 올더스게잇 체험이후 대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 각지로 순회전도와 연간 팔백회 이상의 설교로 신자에게 바른 신앙도리를 갖게 하였다.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핵심사상은 '거독자 완전' 개념이다. 그는 거독자 완전 교리를 자신의 영혼 구원의 목적과 소원을 갖고 성경을 읽는 중에 발견한 것으로, 1725년부터 1765년 저술당시까지 믿고 가르쳐왔다.

그의 사상은 칼빈과 아주 가까웠다. 그러나 그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칼빈과 달랐고, 다분히 알미니우스와 같은 길을 택하였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써 의(義)롭게 된다는 선포에 있어서는 같았지만, 그 외의 구원론 분야에서 다른 점들이 있다. 그의 견해들을 이제부터

살펴 보려고 한다.

B. 웨슬레의 구원관

1. 타락전 인간 이해

웨슬레는 인간의 기원과 성격을 성경 그대로 해석한다.[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웨슬레는 인간 육체의 구성성분을 만물의 4성분인 흙, 물, 불, 공기로 보고 연구하였다.[3] 그러나 인간은 물질적 존재만이 아니라 생각, 판단, 상상, 기억, 오감으로 느끼는 능력, 즉 정신 혹은 영혼을 갖고있다.[4]

원시 상태에 있어서 아담은 죄가 없는 존재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고 있었다. 웨슬레에 의하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중적이라 한다. 첫째로, 자연적인 형상(Natural Image)이다. 이것으로써 인간에게는 지식과 자유의지와 여러가지 사랑이 갖추어져 있었다. 둘째로, 정치적 형상(Political Image)이 있다. 이것으로써 인간은 모든 하등동물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원시적인 완전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으론, 세번째의 도덕적 형상(Moral Image)이었다.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 그리고 순결 등이다.

---

1)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 123

2) 존 웨슬레, 「존 웨슬레 총서」, Ⅵ. (웨슬레사업회, 1983), p. 251 (이하 총서로 표기함)

3) W. Cannon, 웨슬레신학, 남기철역(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pp. 236 ~ 237

4) Ibid., p. 238

곧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6]

이처럼 타락이전의 인간은 완전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나 아담은 이러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말았다. 아담의 타락은 그의 자유의지(Free Will)를 남용한 결과이다.[7]

아담은 창조주와 같이 지혜있고 거룩했으며, 타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8] 아담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며,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이 세상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였다.[9] 아담은 그가 마땅히 복종하였어야 할 하늘나라의 군왕인 창조주에게 반항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였다.[10]

2. 타락후 인간과 죄

웨슬레는 타락이후의 인간은 그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었다.[11] 원시적인 완전성이 변화되었고,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하였다. 예외없이 아담의 후

5) 표준설교, 총서Ⅱ, pp. 227 ~ 228
6) Works, Ⅵ. p. 244
7)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 신학과선교 1 집 (서울신대출판부, 1972), p. 62
8) Works, Ⅸ. p. 291
9) Works, Ⅵ. p. 67
10) Works, Ⅸ. p. 381
11) 박장균. op.cit., p. 63

손들은 모두 타고난 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에서 근원된다[12]고 한다. 웨슬레는 아담의 죄가 인류 타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웨슬레는 죄의 유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담안에서 인간은 죽었다. 첫째로, 우리의 육신이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떨어져 나갔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적이며 악마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넷째, 따라서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식이며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3]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밖에 있는 인간(자연인)의 상태는 완전 타락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웨슬레의 견해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웨슬레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성품이 전적 타락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한다.[15] 즉 인간은 범죄로 본래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 본질상 악한 성향을 갖게된 것이라고 한다.[16]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서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속박되어 졌으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웨슬레가 자연인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혹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17]

---

12) Ibid.
13) Works, Ⅷ. p. 277
14) G. Cell, 존·웨슬레의 재발견, 송흥국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25.
15) 표준설교 38. 총서Ⅱ. p. 189
16) 송흥국, 웨슬레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80), p. 72
17) Works. Ⅸ. p. 450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타락한 아담에 의해 죄성을 지닌 자연인은 영적 수면상태에 있다고 웨슬레는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나 그의 법도, 영적 선물, 영적 사건을 전혀 모르며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범죄하면서도 자책감이 없는 죄의 종이라고 한다.[18]

웨슬레는 자연인을 우상 숭배자로 규정 짓는다.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 이전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지녔으나, 타락이후 자연인은 원하는 대로 악을 선택할 자유는 있어도 선을 택할 자유는 잃었고, 하나님 대신 마귀의 속성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20] 이런 자연인은 하나님의 저주아래 있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21]

3. 웨슬레의 죄관과 구원관

린트스트롬은 웨슬레의 죄관이 죄책관념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언제나 죄를 선천적 타락으로 본다고 한다.[22] 웨슬레는 선천적 타락, 원죄를 일반적인 죄와 같이 객관적이고 주관적 각도에서 파악한다. 이런 두가지 국면,

---

18) 표준설교 9, 총서 Ⅰ, pp. 141 ~ 145
19) 표준설교 38, 총서 Ⅱ, pp. 192 ~ 194
20) H. Lindstrom, Wesley and Sanctification, 전종옥역 (기독교감리회교육국, 1984), p. 50
21) C. Williams.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역 (전망사, 1983), p 54
22) H. Lindstrom. op. cit ., p. 51

곧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와 인간 자신과의 관계로 본다. 웨슬레의 칭의 교리는 죄책으로서의 죄와 관련되어 있고 성화교리는 선천적 요소로서의 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의 죄관의 객관적, 주관적 국면은 구원론에서의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23]

웨슬레는 죄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법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주관적, 의학적 측면에서 구원을 관찰한다. 구원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근원이 된다고 한다. 웨슬레는 원죄를 문둥병으로 보고, 다른 죄들은 원죄에서 기인하는 상처, 질병, 타락으로 묘사한다. 죄를 이처럼 구원의 동기와 필수성으로 보므로 웨슬레는 성화 개념을 중요시 한다.[24]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를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제공 하시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은혜스러운 행동이다.[25]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수하게 제공된다.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행위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한다.[26]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치유자 의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에 웨슬레의 죄관과 구원관은 명확해진다. 그는 죄를 질병으로 보며 구원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주관적, 의학적인 견해가

---

23) Ibid., pp. 53 ~ 54

24) Ibid., p. 55

25) P. A. Mickey. 웨슬레 신학의 요점, 라영복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136

26) Ibid.

객관적, 법적 태도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게된다.[27]

C. 선행 은총과 복음적신인 협동설

1. 선행 은총

웨슬레는 선행적 은총을 프리벤팅 그레이스(Preventing Grace)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28] 이 프리벤팅 (Preventing)이라는 말은 '앞의' '선행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적 은총이란 온전한 은혜에 앞서서 이미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29]

다시 말해서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부여되어진 은총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혼이 죄 가운데 죽어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적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30] 이것은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자연적인 양심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웨슬레는 타락 이후의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의 기능을 선행적 은총의 하나라고 했다.[31] 이는 곧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

27) H. Lindstrom. op. cit., pp. 57 ~ 58
28) 이성주, 『웨슬레신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87. p. 137
29) Ibid.
30) Ibid.
31) Ibid.

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웨슬레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한다.[32]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으며 반면에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슬레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적 은총으로 그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33] 그리하여 웨슬레는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다.[34]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적으로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웨슬레가 주장하는 선행적 은총이다.

2. 복음적 신인 협동설

신인 협동설은 구원의 과정을 다루는 방법론을 말한다.[35] 웨슬레는 선행적 은총을 근거로 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웨슬레는 인간의 타락, 원죄론등을 말하면서 칼빈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원에

32) Ibid., p. 143
33) 표준설교 Ⅱ. p. 214
34) 표준설교 Ⅱ. p. 183
35) 이성주, op. cit., p. 152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과의 협력자로 본다. 곧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생을 택하느냐, 영원의 사망을 택하느냐가 자기의 결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36]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적극적인 역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고, 또 이렇게 시작된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협동하므로 완성된다고 한다.[37] 이것이 신인 협동설이다. 따라서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책임있는 위치에서 함께 호응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38]

D. 예지와 예정에 대한 견해

예지에 대한 웨슬레의 견해는 알미니우스와 같은 의견이었다.[39] 알미나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의 우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진행된 일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시는 것은 아니다. 본래 자유로운 피조물의 행동에 대한 지식은 그 행동들로부터

36) Cannon, op. cit., p. 114
37) 이성주. op. cit., p. 154
38) 조종남, op. cit., p. 102
39) D. M. Yocum. 기독교신조대조, 손택구역, (예수교대한성결교출판부, 1988) p. 79

나오는 것이다. 즉 지식은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행동이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40]고 한다. 웨슬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조하기를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지(豫知) 또는 후지(後知) 같은 것은 없다. 언제나 영원토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알려지며,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일을 이전(以前)의 다른 일처럼 보시지 않는다.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들을 아시는 것이다"[41]고 한다.

웨슬레는 예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지속하게 될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불신앙 가운데 계속 머무를 자들을 영멸(永滅)에 처하도록 미리 마련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42]고 하였다.

웨슬레는 하나님이 예지(豫知)하셨기 때문에 예정(豫定)하신 것으로 본다. 웨슬레는 주장하기를 "부르심을 입는 모든 자들이 예정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자로 아셨고, 보셨고, 또 믿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의 영원하신 결정에 따라 그들을 그런 자격(資格)으로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즉 하나님은 신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43]고 한다.

---

40) Ibid., p. 77
41) Ibid., p. 79
42) Ibid., p. 95
43) Works. Ⅵ. p. 229

Ⅳ. 칼빈과 웨슬레의 예정교리 비교

칼빈과 웨슬레에 있어서 예정과 예지에 대한 이해는 그 순서가 서로 틀린다. 칼빈은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일은 어리석다고 한다.[44] 사람은 동등한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은 영생이 예정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예정되며, 각 사람은 이중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된다는 것이다.[45] 칼빈은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어떤자는 선택했고 어떤자는 유기하기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칼빈의 견해를 웨슬레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웨슬레는 하나님이 신자될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과는 그 순서가 다르다. 예지 하셨기 때문에 예정 하셨다는 것이다. 웨슬레는 칼빈의 이 교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교리는 심판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교리를 뒤집어 엎어버린다[46]고 주장한다. 이 교리 이해가 웨슬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슬레는 예정(豫定)을 '조건부'라는 말로써 이해했다.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으로 예정된 것이라 하였다.[47]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한다.[48]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44) Inst., Ⅲ. 21. 5
45) Inst., Ⅲ. 21. 5
46) Yocum. op.cit., p. 82
47) Ibid., p. 82
48) Ibid.

심판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한다. 웨슬레의 주장은 칼빈이 말한 무조건적 선택을 부인하는 것이다. 웨슬레는 로마서 8:29-30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롬 8:29-30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초기 웨슬레안 신학자인 리쳐드 왓슨(Richard Watson)은 말하기를 "미리 아신자들"(29절)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28절) 그 사람들이라고 보아서, 하나님의 예지는 예정의 대상(對象)이 되는 사람들과 그밖의 사람들과 실제적 구별(實際的區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49]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칼빈 신학자 뵈트너(L. B. Boettn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기 있는 "아는"이란 말은 곧 단지 있는 일을 인지(認知)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에 쓰인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알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별함이며, 독특한 대상이란 것을 보여 준다[50]는 것이다. 만일 바울이 "미리 정한다"는 말을 단순히 예지(豫知)를 근거로 한다는 의미로 썼다면, 그것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는 성경의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의 주장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51]

---

49) Richard. Watson, Theological Institutes (Nelson and Phillips, 1850), Vol. II. p. 357

50) 뵈트너. op. cit., p. 38

51) Ibid., p. 38

뵈트너는 웨슬레가 예지후에 예정 하셨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지는 확정성을 포함하고, 확정성은 예정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미래에 관한 성정(聖定)을 안하셨다면, 창조 전의 영원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해서 확정성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52] 라고 웨슬레의 주장을 반박한다.

52) Ibid.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은 다른 점이 많다.

칼빈이나, 웨슬레나 모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었다. 칼빈은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웨슬레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나 웨슬레나 구원에 있어서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칼빈은 인위적인 노력을 전혀 배제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함으로 예정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 예정사상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으로 확립되었다.

칼빈은 예정을 이해하려하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를 무익한 것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르침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칼빈은 예정론을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의 뚜렷한 차이점은 예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이다. 이 견해들로 인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하게 되고, 웨슬레는 인간의 노력을 첨가하여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게 되

었다. 칼빈의 예정 교리가 칼빈 자신도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웨슬레에게서 반박을 받게 되지만 칼빈은 일관성 있게 예정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 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신다[53]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두 신학자들의 구원론을 고찰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논문의 목적이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두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 한국 교회의 두 주류, 즉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신자들의 한국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칼빈과 웨슬레는 모두 성경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성경주의자들 이었다.

칼빈의 예정론이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칼빈 자신도 그렇게 본다. 모든 인간이 구원 받은 후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칼빈이 예정론에서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위에서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 신앙의 확실성의 유일한 근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부정의 엄격한 삶의 창조적인 힘의 원천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54] 이런 면에서 볼때 칼빈의 예정론은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53) Inst., Ⅲ. 21.1

54) 박봉랑, op. cit., p. 156

참고문헌

1.칼빈 신학

김성환, 「칼빈주의해설」, 서울 : 엠마오, 1984.

박봉랑, "칼빈의예정론".「칼빈신학의 현대적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정덕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이근삼, 「칼빈 · 칼빈주의」, 부산 : 고신대 출판부, 1978.

전경연, 「칼빈의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4.

주재용, "칼빈의 생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Berkhof.Lauis.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me,*「기독교 교리 요약」, 박수준역, 서울 : 소망사, 1980.

Berkhof.Louis. *Systematic Tjeology,* Eerdmans, 1979.

Calvin.John. *A Compend of the Institutec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역.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73.

Buis.H.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Presby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Philadelphia, 1958.

Calvin. John, *Instituteo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4 London : James & Co, 1962.

Murrey.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rereignty,* 나용화역,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Niesel.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by Horold,Knight. 기독교 문화협회, 1987.

Parker.T.H.L, *Portrait of Calvinism, Ariminiasm and Calvation,* 김경진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9.

Wendel.Francis, *Calvin,* 기독교 문화협회, 1986.

2. 웨슬레 신학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신학과 선교」집. 서울대학 출판부, 1972.

송흥국, 「웨슬레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80.

송흥국,「요한 웨슬레」,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80.
이성주,「웨슬레 신학」, 서울 : 성광 문화사, 1987.
조종남.「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존 웨슬레,「존웨슬레 총서」 총10권, 웨슬레사업회, 1983.
Cannon.William.R. *The Theology of John Wesley,* Nashiville : Abingdon Press, 1956.
Cell.George.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송흥국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Lindstrom. Harld, *Wesley and Sanctification,* Nashiville : Abingdon Press, 1946.
Mickey.Paul.A, *Essentials of Wesleyan Theology,* 라영복역, 서울 :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5.
Yocum, dale,M. 기독교 신조대조. 손택구역. 서울 : 예수대한 성결교출판부, 1988.
The Standard Sermens of John Wesley, vols. Annotated by E.H.Sugden. London : The Epworth Press, 1955.
Williams.Collin W. *John Wesley's Thedogy Today,* Nashiville : Abingdon Press, 1960.

3. 기 타

Kuiper.B.K.「세계기독교회사」, 김해연,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Moyer.E.S.「인물중심교회사」, 곽안전 · 심재원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6.
Neve.J.L.「기독교회사」, 서남동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Spitz.Lewis.W.「종교 개혁사」, 서영일역,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Walker.W.「세계 기독교회사」, 강근환외 3인공역.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82.

Abstract

A Comparison Calvin with Wesley in the Salvation.

gohn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the essence of the Korea Presbyterian Church, And Wesley is the theological prop in the Methodist Church.
Therefore a study on the Salvation of two schlar is examined in which compared Presbyterian church with Methodist church.

Actually the difference of bilateral doctrine is well known to us by the accurate knowledge of doctrine.
Here, I introduce that Calvin's doctine of Predestination is the confession of faith of Calvin. And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 intend to compare calin with Wesley

I. Introduction
- A. the Means(Importance) and Purpose of a study.
- B. the Method and Extent of a study.

II. the Salvation of Calvin
- A. Calvin©s Life and Background of Learning.
- B. the View of the Salvation.
- C.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1. Situation of Doctrine of Predestination.
  2. comprehension and theme of Doctrine of Predestination.
  3. Double Predestination.

Ⅲ. the Salvation of Wesley

A. Wesley's Life and Background of Learning

B. the Salvation of Wesley

C. Preventing Grace and Evangelical Synergisn

D. View of Foreknowledge and Predstination

Ⅳ. A Comparison Calvin with Wesley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Ⅴ. Conclusion

Calvin is coincide with Wesley in the point of the Salvation through the Grace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consisted of Double predestination by Election and Reprobation

The distinct difference is the view of the predestination Calvin anly emphasiged the Grace of God, Wesley emphasiged the Synergisn which added human's endeavour

But is not desirable to compare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two scholars We mast understand the Status guo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a difficalt Problen to understand through our Wisdom But we must Confess as being rescued This point is the intention of Calvin